

폴리미래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폴리미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우리가 쉽 없이 함께 달려온 지난 20년간의 여정은

폴리미래가 최고의 폴리프로필렌 전문기업으로 도약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 프리미엄 멜트블로운 부직포를 위한 폴리미래의 혁신적인 솔루션!

Metocene MF650W, MF650X, MF650Y, MF650Z



메토센 멜트블로운 PP 솔루션은 일반

멜트블로운 PP보다 균일하고 미세한 섬유구조를 가진

멜트블로운 부직포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Poly Village

2020 20<sup>th</sup> Anniversary Special Edition Vol.45

## 20<sup>th</sup> Anniversary Special Edition

- 04 취임사 및 CEO 메시지**  
또 다른 도약을 위해 다 같이 비상(飛翔)합시다!
- 06 외부 인사 축하 메시지**  
LyondellBasell | 대림산업 | SK Advanced | GS칼텍스 | 밀리켄 아시아퍼시픽
- 10 함께한 20년, 함께할 내일을 위하여!**  
열정과 화합으로 다져온 20년, 최고의 폴리프로필렌 전문기업으로 우뚝
- 14 폴리미래인이 말하는 20년**  
입사 때부터 지금까지 폴리미래와 함께해 온 20년  
공장장 윤기엽 전무  
  
폴리미래 20년의 성장 기록  
공정팀 하대봉 부장
- 18 폴리미래 Vision 2020 vs Vision 2040**  
기술팀 강은혜 차장 | 사업자산관리팀 이홍석 차장
- 20 숫자로 보는 폴리미래**  
'폴리미래' 얼마나 아시나요?
- 22 폴리미래 임직원들이 보내온 20주년 축하 메시지**  
약관(弱冠)의 나이가 된 폴리미래, 창립 20주년을 축하합니다!

## Poly & Business

- 24 오늘 폴리미래**  
2040년 폴리미래의 모습은...  
재무 및 기업지원 총괄임원 조성출 상무
- 26 현장 스케치**  
새롭게 이전한 폴리미래 본사 사무실을 소개합니다!
- 30 뉴스 브리핑**
- 35 인사동정**
- 36 특집**  
장수기업의 조건  
공병호TV 공병호연구소 공병호 소장

## Poly & People

- 40 폴리 인터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눈부실 폴리미래의 새로운 주역들
- 46 포커스**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폴리미래

## Poly & Relax

- 48 힐링 메시지**
- 50 함께 떠나는 추억여행**  
캠성 가득 추억 동네!
- 52 라이프 트렌드**  
온택트, 달콤하도고 쓰디쓴 Bittersweet  
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54 우리가 폴리미래의 주인공!**
- 58 퀴즈세상**

### PolyMirae Magazine

폴리마을 통권 제45호 | 발행인 김방현 | 발행처 폴리미래주식회사 Poly Village Vol.45 | 2020 20<sup>th</sup> Anniversary Special Edition | 발행일 2020년 9월 1일 | 기획 사보기획팀 | 디자인·제작 에브리딩디자인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17층 | TEL (02)2167-8914

이 책은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도서집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9월 1일은 폴리미레가 창립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2000년 창립 이후 20년 동안 한결같이 회사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주주, 관계사, 고객 및 지역사회 여러분 그리고 맡은바 책임을 다하여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임직원 모두에게 이 기회를 통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친애하는 폴리미레 비즈니스 파트너,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지난 3월 새롭게 폴리미레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사장을 맡게 된 김방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폴리미레를 떠나신 말티노 가벨리치 사장님의 모범적인 리더십, 폴리미레에 대한 헌신과 업적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주사인 LyondellBasell에서 새롭게 맡게 된 Recycling & Sustainability 분야에서도 대단한 성과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창립 20주년이 되는 올해 제가 폴리미레를 이끌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폴리미레에서 성장하여 대표이사가 된 첫 사례라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 또한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폴리미레가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는 가운데 고객, 직원, 공급자, 서비스 제공자, 지역사회 및 주주들에게 뛰어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폴리미레 대표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여러분 앞에서 다짐합니다.

## 또 다른 도약을 위해 다 같이 비상(飛翔)합시다!

폴리미레가 스무 살이 될 때까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운 환경을 겪었고, 그런 시련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더욱 굳게 단결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오늘날 더욱 강해진 폴리미레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폴리미레는 지금까지 많은 리더들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20년간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주신 그분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주년을 맞는 올해 대외 환경이 조금이라도 우호적이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저희를 포함해서 전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고 변덕스러우며, 이러한 어려운 환경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미레 모든 임직원들은 각자 업무에 혁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여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안전/환경/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영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성과에 대해 스스로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폴리미레는 2020년 6월 21일 24:00부로 무재해 3,000일(10배수)이라는 또 다른 안전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석유화학 산업에서 크게 인정받고 있는 중요한 대기록입니다. 이 대기록은 임직원 모두의 하나된 노력 및 안전/환경/보건 분야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정책과 강한 실행력으로 이루어 낸 뛰어난 성과라 자부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폴리미레의 특별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영업적인 측면에서 폴리미레는 다른 기업들과 달리 차별화된 제품군을 통하여 기대 이상의 높은 재무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 필터 핵심 원자재인 메토펜 및 컨벤셔널 멜트블로운 제품을 가능한 최대 생산하여 국내외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억제하는데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는 급증하는 메토펜 및 컨벤셔널 멜트블로운 제품 수요에 따라 지난 5월 스페셜티 최대 판매기록을 기록함과 동시에 창립 이후 월간 기준 최고의 재무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속성장을 굳건히 하기 위해 투자와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SK Advanced와 파트너십을 맺고 합작회사로 설립한 울산 피피 주식회사는 현재 사업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에는 신규 생산 라인의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피피 주식회사의 제품 생산은 우리의 확장 전략을 지원하여 글로벌 고객들을 위해 제공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내 경쟁과 매우 불확실한 시장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매우 도전적 시기에 당면해 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은 세계적인 대규모 증설로 인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환경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리미레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확실성, 즉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비전인 '뛰어난 성과, 역량 있는 인재,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아시아 폴리프로필렌 산업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발 더 나아갈 것입니다.

폴리미레는 공정의 우수성과 안전에 대하여 업계의 모범으로 자리잡았으며, 제품 포트폴리오, 품질, 고객 서비스 및 신뢰할 수 있는 공급을 통해 업계에서 널리 존경받고 있습니다. 폴리미레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다른 기업들과의 차별화를 통해 폴리프로필렌 산업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폴리미레는 창립 이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은 이루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쌓아온 성장의 기틀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 기회를 포함한 다양하고 새로운 도전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폴리미레의 완벽한 안전 운전, 우수한 재무적 성과 그리고 지속되는 미래 성장을 향한 우리의 열정에 동승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 때 우리는 강하며 앞으로도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역동적이고 성공적인 미래를 만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폴리미레의 스무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김방현  
대표이사/사장

폴리미래가 올해로 창립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주주사, 관계사, 고객사, 협력업체와의 오랜 인연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폴리미래와 인연을 맺으며 탄탄한 믿음과 신뢰 속에 함께 성장해온 주주사인 LyondellBasell과 대림산업, 관계사 SK Advanced, 고객사 GS칼텍스 그리고 협력업체 밀리켄에서 창립 20주년 축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 그동안 이룬 성과를 토대로 더 많은 성공 신화를 이어가길...



필 파이먼  
LyondellBasell 대표

저는 LyondellBasell을 대표하여 폴리미래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것에 대해 그 누구보다 따뜻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COVID-19로 중요한 기념일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없어 아쉽지만, 여행 규제가 완화되는 대로 폴리미래를 다시 방문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00년 9월 1일 합작회사를 설립하면서 우리는 폴리미래가 아시아에서 폴리프로필렌 산업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이번 20주년과 지금까지의 폴리미래 업적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성취해 온 모든 일에 대해 여러분은 큰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워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도 대림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오늘에 폴리미래가 있게 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폴리미래에 성공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과 높은 수준의 안전 및 공장 운영을 선도하는 고도로 숙련되고 헌신적이며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임직원들이 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폴리미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COVID-19로 야기되는 주요 도전 속에서도 최근 몇 달 동안 뛰어난 성과를 보여줌에 따라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성공적인 역사가 미래 성장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2021년 울산PP 공장 가동과 폴리미래의 미래에 대한 행보는 세계 흥미진진한 시간을 갖도록 기대하게 합니다.

폴리미래의 20주년을 축하하며, 그동안 이룩한 성과를 돌아볼 때 더 많은 성공적인 신화가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합니다.

저희, LyondellBasell, 모두는 폴리미래에게 진심을 담아 축하를 보냅니다!

## 최고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쏟은 값진 땀과 열정의 시간

폴리미래 임직원 여러분,

폴리미래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폴리미래는 현 주주사인 대림이 폴리프로필렌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선도기업인 LyondellBasell과 합작하여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폴리프로필렌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새로운 회사를 세우고자 2000년에 창립되었습니다.

2000년 9월 설립 이후 폴리미래는 '08년 무역의 날 은탑 수상, '11년 지식경제부 세계 일류기업 선정, '16년 여수시 안전 경영 우수기업 수상, '17년 고용노동부 주관 협력업체 협력프로그램 최고 평가, '18년 1천만 톤 생산 달성, '19년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산업 훈장 수상 등 안전, 공정, 노사관계, 마케팅 등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대림의 탁월한 공장운영 역량과 세계 최고 수준의 폴리프로필렌 제조기술인 스페리폴 공정의 풍부한 운영 노하우가 접목되어 폴리미래는 공정의 우수성과 안전에 대하여 업계의 모범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혁신적인 제품 포트폴리오, 품질, 고객 서비스 및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판매망을 통해 업계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끊임없는 공정 혁신과 차별화된 안전 문화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 낸 폴리미래 임직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폴리미래의 역량과 시장 위치를 바탕으로 양 주주사의 강력한 후원 하에 SK Advanced와 합작으로 울산피피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울산피피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폴리프로필렌 제조사로서 자리매김한 폴리미래가 역량과 실력을 다시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림과 LyondellBasell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폴리미래는 향후에도 저비용 고효율 구조를 유지하면서,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경쟁사 대비 높은 프리미엄을 유지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자동차용 컴파운드 제품, 메토센, 멜트블로운 등 어느 경쟁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혁신적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반으로 아시아 최고 수준의 폴리프로필렌 회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고수의 스페셜티 신사업 및 저원가 지역 진출전략을 추진 중인 대림은 폴리미래의 탁월한 O&M 역량과 제품차별화 역량을 결합하여 '25년 Global Top 20 석유화학회사'라는 비전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폴리미래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대림의 역량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주주사와 합작사의 이해 관계를 넘어 사업의 동반자로서 지난 20년간 쌓아온 폴리미래와 대림의 신뢰 관계는 예측 불가능한 경영환경 속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며, 폴리미래와 대림의 향후 20년이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폴리미래 임직원 여러분들이 만들어 낸 놀라운 성과를 기억하고, 앞으로 만들어 갈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폴리미래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 CSO



## 탄탄한 저력과 부단한 노력에 찬사를!



김철진  
SK Advanced 대표이사

존경하는 김방현 사장님과 폴리미래 구성원 여러분,  
 폴리미래 창립 20주년을 모든 SK Advanced 구성원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20년은 우리나라 속담으로 보자면, 강산이 두 번 변할 시간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성년이 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20년 전 폴리미래가 탄생했을 때, 오늘날의 멋진 “청년”으로 성장하는 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온전히 “가능성”이었던 20년 동안, 폴리미래 모든 구성원들의 땀과 열정, 때로는 눈물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20세의 성년이 된 폴리미래는 어떤 사업환경에서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건강하고 튼튼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저는, SK Advanced에서 추진하던 프로필렌 다운스트림(Propylene Downstream) 사업의 파트너십 논의를 위해 폴리미래의 당시 말티노 가벨리치 사장님을 비롯한 경영진을 만났습니다. 첫 만남 이후, 논의를 위한 시간을 가지며 가질수록 합리적인 의견과 적극적인 자세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아울러 양사간의 화합이 잘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서로의 생각을 바탕으로 협상을 거친 후, 2018년 6월 합병계약의 체결과 11월 울산피피(UPP)의 법인설립을 하였으며, 이는 성년이 된 폴리미래와 SK Advanced가 결혼을 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현재 울산피피 프로젝트는 조 호킨스 사장님의 리더십 하에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으며, 올해 12월 MC 및 내년 3월 가동을 목표로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경영진 선임, 역량 있는 구성원 확보 및 현장교육 등을 위해 폴리미래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폴리미래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20년 동안의 지속적인 성과를 만들어낸 폴리미래의 저력은 무엇보다도 전 구성원들께서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속하여 발전해 나아가려는 높은 목표의식과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책임의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성장의 고비마다, 최고의 제품에 대한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결국 오늘 같은 훌륭한 회사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성년이 된 폴리미래와 SK Advanced가 배출한 울산피피도 양사간의 단합된 마음과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탑티어 폴리프로필렌(Global Top Tier PP) 전문회사로 성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사가 꿈꾸는 미래는 가까운 것이 아니고, 50년, 100년을 염두에 둔 먼 여정입니다.  
 이 긴 여정을 위해서 폴리미래라는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20주년 성년을 맞이하는 폴리미래의 그동안의 눈부신 성과에 대해 찬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폴리미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석유화학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폴리미래의 창사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작과 함께 등장하여 대한민국의 폴리프로필렌 시장을 선도해 온 폴리미래가 벌써 20주년이 되었다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GS칼텍스는 폴리프로필렌 산업 내 폴리미래의 경쟁사입니다. 그러나, GS칼텍스는 폴리미래의 폴리프로필렌 제품 일부를 GS칼텍스 복합 폴리프로필렌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아시아 폴리프로필렌 산업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 되고자 하는 폴리미래의 비전과 기업문화 덕분에, GS칼텍스는 폴리미래와 함께 건전한 경쟁을 동반한 사업적 파트너 관계를 통해 동반 성장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폴리미래의 과감한 결정과 적극적인 협력은 양사 간 신뢰와 최고의 사업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양사가 석유화학 분야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원동력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창사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폴리미래의 전 임직원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권혁관  
GS칼텍스 석유화학사업본부장  
부사장

## 세계적인 폴리프로필렌 회사로 거듭나기를

저는 밀리켄을 대표하여 폴리미래 창립 20주년을 맞아 가장 따뜻한 축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폴리미래는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 냈습니다.  
 폴리미래는 혁신적인 전략과 임직원들의 일치되고 부단한 노력으로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폴리미래의 성공은 현 화학 산업에서의 모범이 되어왔으며, 다가오는 미래에도 진보된 기술 개발과 각 산업의 선구자들과의 친밀한 파트너십의 구축은 폴리미래가 꾸준히 성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폴리미래와의 인연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일빈 주  
밀리켄 아시아퍼시픽 부사장

# 열정과 화합으로 다져온 20년, 최고의 폴리프로필렌 전문기업으로 우뚝!

창립 초기, 어려운 세계 경제 상황과 폴리프로필렌 시장의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도 지금과 같이 성장해온 과정 속에는 언제나 우리 폴리미래인들의 헌신과 노력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20년의 역사, 앞으로 폴리프로필렌 시장의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지난 20년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2000년 9월 LyondellBasell과 대림산업(주)의 합작으로 폴리미래 주식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창립 초기, 산업전반의 경기침체로 인한 대내외적 경영 환경의 불안정, 자본 잠식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폴리미래는 ISO 14001 및 ISO 9001 인증 획득, 지속적인 설비투자, 제품 품질 개선 등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 2000~2004

# 2000's~



생산량 극대화 및 공급 확대를 통해 2008년 12월에 6억불 수출의 탑 및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으며, 2009년에는 AMH(Advanced Monomer Handling) 및 메토센 프로젝트를 통해 메토센, 멜트블로운, RTPO, HIFAX와 같은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을 생산해내며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파이버, 자동차, 푸드패키징과 같은 다양한 소재 분야로 시장을 확대 하였습니다.

이어 폴리미래는 2010년 디보틀넥킹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생산능력을 6만 톤에서 68만 톤까지 확대 하였습니다.



## 2006~2009



**2000.09**  
폴리미래 주식회사 설립

**2000.12**  
ISO 14001 / 9001 인증 획득  
**2001**  
Line 4 액상반응기  
고압/고온 운전설비공사

**2004.11**  
4억불 수출탑 및  
동탄산업훈장 수상

**2005.07**  
디보틀넥킹 프로젝트 실시

**2006.06**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장 수상  
**2006.09**  
노사 화합 선언

**2007.12**  
LyondellBasell Operability  
Award 수상

**2008.12**  
6억불 수출의 탑 수상  
은탑산업훈장 수상

**2009.01**  
AMH 및 메토센 기술도입 및  
설비 준공  
**2010**  
디보틀넥킹 프로젝트 실시



폴리미래는 안전/환경/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2012년 고용노동부로부터 PSM 정기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P등급 획득, 2013년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 최초 획득, 2015년 여수시로부터 안전경영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안전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2018년에는 폴리프로필렌 누적 생산량 천만 톤을 달성하였으며, 추가적인 디보틀벡킹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생산능력을 73만 톤까지 향상시켰습니다. 스페셜티뿐만 아니라 고객의 니즈에 최적화된 130여 개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전략으로 영업활동에서의 수익구조 개선과 해외 신규 고객 개발을 통해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에 폴리프로필렌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012~2018



## 2010's~

**2012.12**  
고용노동부 PSM(공정안전관리) 제도 정기평가 최고 등급 P 획득  
**2013.11**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최고 등급 A 최초 획득

**2015.03**  
여수 안전경영 최우수 기업수상

**2016**  
LyondellBasell Goal ZERO BRIGHT STAR AWARD 수상

**2018.01**  
PP 누적생산량 천만 톤 달성  
**2018.10**  
디보틀벡킹 프로젝트 실시

폴리미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2018년 11월 SK Advanced와 파트너십을 맺고 합작투자를 통해 울산피피(UPP)를 설립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울산피피의 신규라인을 통한 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폴리미래의 시장 확장 전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8~2020



폴리미래는 "Safety Perfection Without Exception."이라는 슬로건 아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시스템 개선과 투자사업을 추진해 지난 2020년 6월 21일 무재해 3000일이라는 안전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필터의 핵심 소재인 멜트블로운의 필수 원자재인 폴리프로필렌을 세계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감염증 확산차단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폴리미래는 앞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더 강화된 제품 포트폴리오와 탁월한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 폴리프로필렌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입니다.

## 2020's

**2018.11**  
투자합작회사 울산피피(UPP) 설립  
**2018.12**  
고용노동부 공생협력 프로그램 연속 A 등급 획득

**2019.01**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산업 훈장 수상

**2019.04**  
유한킴벌리의 우수협력업체로 선정 및 감사패 수상  
세프라의 우수협력업체로 선정 및 감사패 수상

**2020.06**  
무재해 3000일(10배수) 달성



폴리미래의 시작과 함께 20년을 동고동락하며 같이 성장해온 이들이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옆으로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회사와 함께해 온 이들이 맞는 창립 20주년의 의미는 그 무엇보다도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들에게 폴리미래의 20년이라는 시간 속에 담긴 의미와 추억, 그리고 미래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 입사 때부터 지금까지 폴리미래와 함께해 온 20년



폴리미래 20년을 돌아보며...

'역사는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자의 몫이다.'라는 말이 있다. 앞으로의 20년을 만들어 가는 데 나부터 큰 밑거름이 되기를 다짐한다.

공장장 \_ 윤기업 전무

폴리미래 출범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벌써 20돌을 맞이하였다. 대림과 한화의 빅딜로 시작된 모노머와 폴리머 부문의 분리에 이어 폴리프로필렌 부문도 LyondellBasell과의 합작으로 폴리미래가 탄생되었고 폴리프로필렌의 원천기술을 가진 LyondellBasell과의 합작이어서 당시 직원들이 큰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 기억이 새롭다. 출범 당시 생산팀장을 시작으로 생산3팀장, 공정팀장을 거쳐 공장장에 이르는 20여 년간 큰 사고 없이 직원들과 동고동락하며 지낸 시간들은 내게 가장 소중하고 값진 기억들이다. 그동안 함께한 모든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폴리미래에서 지낸 20년을 돌아보며 힘들었던 일,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성취했던 일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행복해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본다.

### 폴리미래 초기 10년은 우리에게 도전의 시간

폴리미래 출범 초기 3년은 폴리프로필렌 시장의 경쟁도 치열하고 영업적으로 힘든 시기여서 예상외의 큰 영업적자를 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기간은 길진 않았다. 모든 적자기업이 그렇듯 모두의 관심이 제조원가 절감(Cost Saving), 영업 확대에 있었으며 이로 인한 심한 압박으로 회사를 떠나는 여러 동료들을 지켜보아야 했었다. 특히, 출범 초기 HOMO Injection, Yarn 등 범용제품 위주의 빈약한 제품 구조(Product Mix)는 시장에서 기대만큼의 수익을 거두지 못한 주요인이었다.

그러나 초기의 이런 어려움은 고부가 제품으로의 제품 믹스 개선에 대한 강한 자극제가 되었고 2001년 말 평여 공장 고온고압 공정 도입을 시작으로 코폴리머(RACO & HECO)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인 시기였다. 그 당시 생산3팀장을 맡

아 수많은 공정 트러블을 겪으며 고품질의 HECO 제품 생산에 매진하였던 기억이 생생하다.

회사 출범 후 3~4년간 회사 경영의 큰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찾아온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석유화학제품 수요를 필요로 하여 폴리미래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석유화학 업체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신규 공장 증설의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폴리미래 또한, 생산량 증대를 위한 공장별 디보틀넥킹(de-bottlenecking) 작업을 추진하여 2010년도에는 연간 생산능력 70만톤 시대를 열었고, 그 당시 공정팀장을 맡아 다수의 디보틀넥킹을 수행하여 월간 최대 생산량 기록 갱신을 수차례 경영진께 보고 드렸던 기억은 지금도 자부심으로 남아있다. 특히, 생산량 증대 활동 가운데 2009년 프로젝트 팀장을 맡아 추진했던 AMH 및 메토센 프로젝트는 폴리미래 스페셜티 제품의 영역을 한 차원 넓힌 큰 진전이었다고 가스 반응기(Gas Reactor) 건축물을 해체하고 재설치한 어려운 작업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폴리미래 출범 후 초기 10년은 공장 생산능력을 크게 확대하고 제품 구조를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도전의 시간이었다.

### 폴리미래 후반기 10년은 한 팀(One Team) 정신으로 모두가 하나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수년간 우리 회사를 비롯한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호황기를 이끌었지만 2010년 이후 중동 산유국의 대규모 석유화학 투자에 따른 공급 증가로 더는 범용제품으로는 경쟁하기 어렵다는 것을 일깨워준 아픈 기억이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로 뭉쳐 힘을 키워야 생존할 수 있는 것처럼, 이때부터 본사와 공장이 하나라는 'One Team'을 수없이 외치며 우리 모두가 정말 한 팀처럼 협업했던 일들이 기억난다. 물론 지금은 한 팀을 외치지 않아도 One Team 마인드로 일하고 있지만, 어려운 시기에 One Team 슬로건은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냈던 우리의 다짐이었다.

폴리미래 전반 10년이 생산량 증대와 제품 믹스를 개선하기 위한 도전의 시간이었다면 2010년부터 올해 2020년까지는 메토센, 멜트블로우와 같은 스페셜티 제품의 지속적인 시장 확대와 좀 더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고 성공시킨 성취의 시간들이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한 멜트블로우 제품 생산을 폴리프로필렌 1, 2, 3라인으로 다변화시켜 추가적인 판매를 달성한 것은 우리 직원들의 발 빠른 대처 능력과 탁월한 운전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상징적인 예로 생각된다. 또한, 지난 6월 달성한 무사고 3000일의 대기록은 직원들의 철저한 안전마인드 및 회사



“  
지난 6월 달성한 무사고 3000일의 대기록은 직원들의 철저한 안전마인드 및 회사의 높아진 안전문화가 바탕이 된 우리의 큰 성취였다.





의 높아진 안전문화가 바탕이 된 우리의 큰 성취였다.

폴리머출범 후반기 10년은 전반기 10년에 비해 회사의 경쟁력이 한 차원 더 높아지고 높은 영업성과 및 안전성과를 달성한 강한 회사로 거듭날 시간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폴리머 20년은 직원들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더 좋은 회사로 계속 발전해나갈 것이다.

지금은 이전의 20년보다 산업 및 시장의 변화가 더 빠르고 국내외적으로도 경쟁이 더 심화된 상황이다. 경쟁력 있는 더 강한 회사가 되기 위해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결국 그 결과는 내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직원의 성장 발전 없이 회사 발전을 기대할 수

없듯이 고객만족에 앞서 직원 만족에 더 많이 배려하고 직원들의 꿈과 희망이 살아있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

지금 공장 운영의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나로서는 무엇보다 먼저 직원들의 안전, 보전이 최우선 과제다. 우리들이 일하고 있는 지금의 일터를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데 온 정성을 다 할 것임을 다짐해 본다.

‘역사는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자의 몫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동안 폴리머가 힘든 여정을 거쳐 지금의 강한 회사가 되었듯이 앞으로의 희망찬 20년을 만들어가는 데 나부터 큰 밑거름이 되기를 다짐해 본다.



### 폴리머 20년의 성장 기록

출범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20년이 지난 현재 우수한 경영실적과 높은 성과를 기록한 폴리머는 앞으로도 노사가 협력하여 글로벌 폴리프로필렌 전문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공정팀 \_ 하대봉 부장



폴리머는 최근 5년 동안 우수한 경영실적과 성과를 기록해 오고 있으며,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멜트블로운 폴리프로필렌 원료 공급사로서 탁월한 운전능력과 안정적인 공급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범 초기의 폴리머는 지금의 상황과 많이 달랐습니다. 1997년 발생한 IMF 경제위기는 우리나라 모든 기업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석유화학업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대신의 현대석유화학은 LG와 롯데로 분할되었고 삼성석유화학도 토탈에 지분을 이전하며 삼성토탈(현 한화토탈)로 사명을 변경하는 등 석유화학산업 전반이 모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폴리머도 예외가 아니듯 출범 초기 회사 경영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초기 대부분의 제품은 범용제품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시장에서 얻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라인2에서는 특정 제품만 생산할 수 있었으며, 스페셜티 제품은 3달에 한번 800톤 가량만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하였고 시장상황이 나빠지면서 공장가동이 어려워 석유화학 공장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업적 가동정지도 일어나곤 했습니다. 경영실적이 나빠져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영권이 바뀐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프로필렌 원료를 구매하여 폴리프로필렌 제품을 생산하는 폴리머가 선택한 방법은 생산량과 부가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스페셜티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폴리머가 출범한 2000년에는 연간 생산량이 47만 톤 밖에 되지 않았으나 2003년부터 체증 현상을 일으키는 병목(Bottleneck)을 찾아내 해결하고 전체 공정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디보틀넥킹(Debottlenecking)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2010년에 68만 톤이라는 생산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Metocene, Pellet Melt Blown, Anti-tiger stripe, 2GPR Heco, Pipe grade 등 시간당 생산량이 낮은 고부가가치 및 스페셜티 제품의 생산이 늘자 전체 공장 생산량은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 메토센

및 라인4 디보틀넥킹 프로젝트를 재 진행하며 신규 공장을 건설하지 않고 기존의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2019년 68만 톤까지 다시 생산량을 증가시켰습니다.

폴리머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현재는 Metocene과 Pellet, Melt-Blown 등 부가가치가 높은 스페셜티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마스크 원료를 공급하는 중요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폴리머가 시도했던 많은 도전 중에는 메토센과 디보틀넥킹 등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라인1 AMH, 라인3 파이프 프로젝트 등 예상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폴리머가 초기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현재의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의 요구를 빠르게 파악하고 성공 가능성이 보이면 과감하게 투자를 시도하는 경영진의 안목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지 고객을 찾아가는 영업,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그리고 이런 폴리머의 노력을 인정해 준 고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간 폴리머는 노사가 협력하여 현재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와 안전한 공장운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폴리머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와 안전한 공장운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폴리머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메가트렌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재택근무, 화상회의, 온라인 판매 등 기업 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시장 상황도 예측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폴리미래는 불확실한 기업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변화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지, 장기적 가치 창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려 합니다. 이제 폴리미래의 제2의 도약을 위해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글로벌 선도기업을 향해 나아갑시다.



## Vision 2020

# 수많은 난관과 역경을 헤쳐온 지난 20년의 폴리미래

기술팀 \_ 강은혜 차장 / 사업자산관리팀 \_ 이홍석 차장

2020년! 뛰어난 성과, 역량 있는 인재,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폴리프로필렌 산업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 된다는 원대한 꿈을 안고 폴리미래가 출범한 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저는 지난 2008년에 입사하여 폴리미래가 스무 살이 될 때까지 1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회사와 함께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뿌듯합니다.

폴리미래는 출범 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대내외적 경영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한 자본 잠식, 새로운 조직문화 정착에 따른 직원들의 동요 등 현재의 폴리미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지금의 후배들이 우리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오늘의 폴리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무엇보다 회사가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안전·환경·보건 분야에 있어서 "Safety Perfection"이라는 슬로건 아래 완벽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시스템 개선과 투자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생산능력확장 프로젝트 진행 및 적기 설비투자 등을 통해 현재의 높은 생산성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신규시장 선점을 위한 메토센과 AMH 프로젝트 진행과 더불어 폴리미래의 브랜드 가치를 높

이기 위한 치열한 마케팅활동과 제품개발 등 많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창사 20주년이 된 올해에는 안전과 생산, 영업마케팅 및 제품개발에 이르는 모든 측면에 있어 매우 괄목할만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1일 달성한 무재해 3,000일(10배수) 달성은 석유화학산업에서는 대기록이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간 스페셜티 제품 최대 판매를 통해 창사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재무성과를 달성하는 등 많은 기념비적인 기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폴리미래 구성원들의 행동방식인 'One Winning Team'이 가장 큰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One Winning Team'은 제품생산, 영업 및 마케팅 활동 그리고 고객 가치전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서가 일련의 활동에 있어 유기적인 소통으로 성공적인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발판이 될 수 있었으며, 이는 훌륭한 폴리미래인의 DNA로 자리잡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년의 성과를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함과 동시에 새로운 20년을 위한 힘찬 비상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폴리미래의 장점을 더욱 발전시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차게 한발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Vision 2040

# 새로운 미래를 향한 20년 후의 폴리미래

20세, 사람으로 치면 지난 노력을 발판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던 무수한 꿈을 펼치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이제 스무 살이 된 폴리미래는 미래 20년 후의 모습은 어떨까요? 폴리미래 직원들이 꿈꾸고 주인공이 되어 이루고 싶은 20년 후의 모습을 살펴보려 합니다.

### 세계 폴리프로필렌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폴리미래

폴리미래는 20년 후에도 제품, 시장 및 고객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지금보다 더 강화된 제품 포트폴리오(Product Portfolio)를 가지고 세계 폴리프로필렌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보다 폭넓게 공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21년 상반기부터 가동되는 울산피피의 40만톤 생산량까지 더해 시장지배 능력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연 110만톤 이상의 공급능력을 가진 폴리미래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적기에 개발하여 대응하고, 적극적인 기술지원,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함으로써 고객에게 뛰어난 가치를 전달하여 세계 폴리프로필렌 시장에서 선두 기업이 될 것입니다.

### 폴리프로필렌 기술의 선두주자

지난 20년간 주주사인 LyondellBasell과의 지속적인 기술 협력을 통해 제품 차별화 전략을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제품개발을 하였

으며, 이로 인해 여러 산업에서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폴리미래는 새로운 삶의 질을 높이고 높은 수준의 고객 가치를 전달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절대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마스크 용 필터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인 멜트블로우와 메토센을 세계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는 것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의 구조적인 강점, 즉 경쟁사들을 능가하는 차별화한 제품 개발을 통하여 폴리프로필렌 산업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 될 것을 믿습니다.

### 일하고 싶은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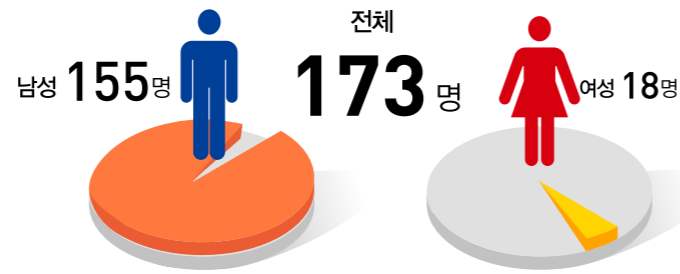
배움에 끝이 없어 지루할 틈이 없는 회사, 일할 때는 효율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쉬는 합리적인 조직문화와 함께 서로를 존중하는 멋진 임직원들이 모여 있는 폴리미래입니다. 'One Winning Team'의 DNA를 가진 폴리미래인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이를 기반으로 높은 생산성 및 재무적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하면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만족감을 높여갈 수 있는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 그리고 폴리미래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밝고 희망찬 미래의 2040년을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맞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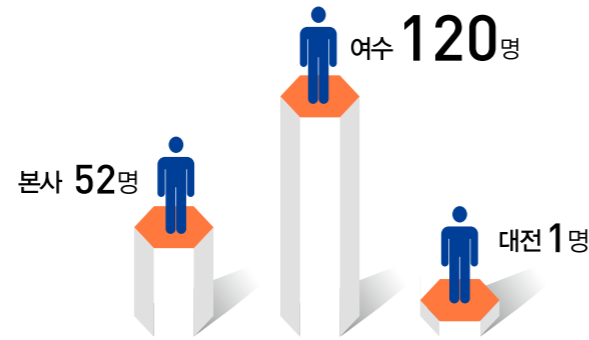
## ‘폴리미래’ 얼마나 아시나요?

폴리미래는 2020년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과 함께한 폴리미래의 다양한 기록을 인포그래픽을 통한 숫자로 한 눈에 바라보았습니다. 인포그래픽으로 보여준 아래의 숫자들은 ‘폴리미래’라는 회사를 이해하는 좋은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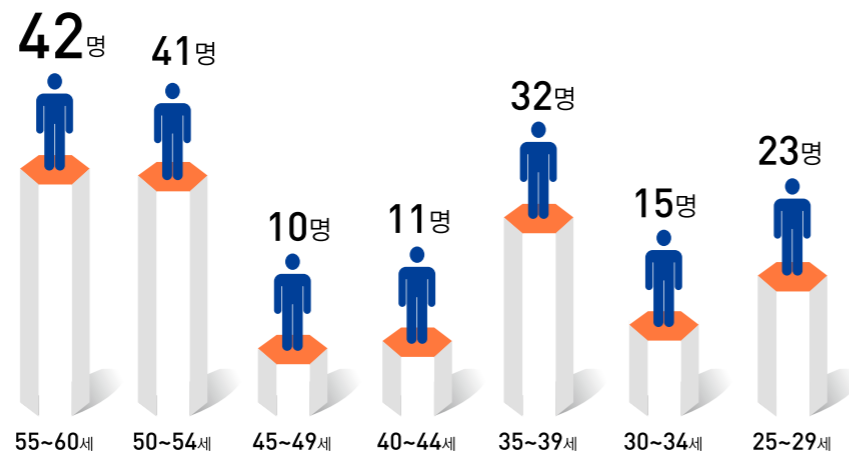
폴리미래 직원의 남녀 구성비는 1:9로 대부분이 남성이다.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 직원의 대부분이 제품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특성상 남성 직원의 비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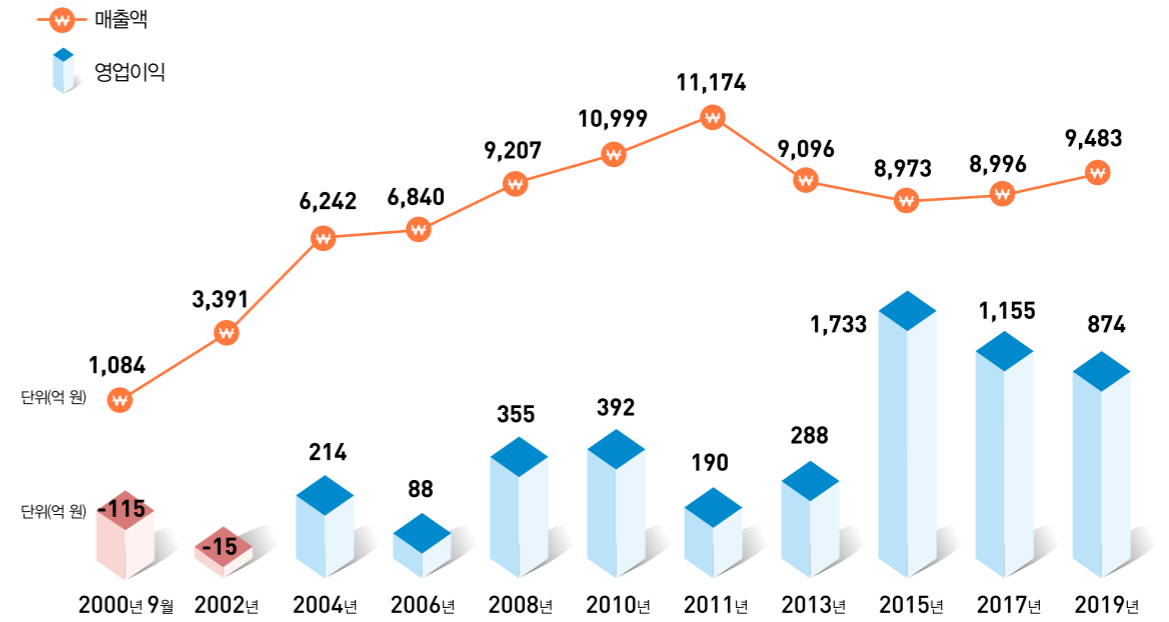
폴리미래는 서울 여의도 본사를 비롯해 여수공장과 대전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직원의 상당수가 여수공장에 근무하고 있으나, 워크샵 등을 통한 전사적인 직원 교류활동을 통해,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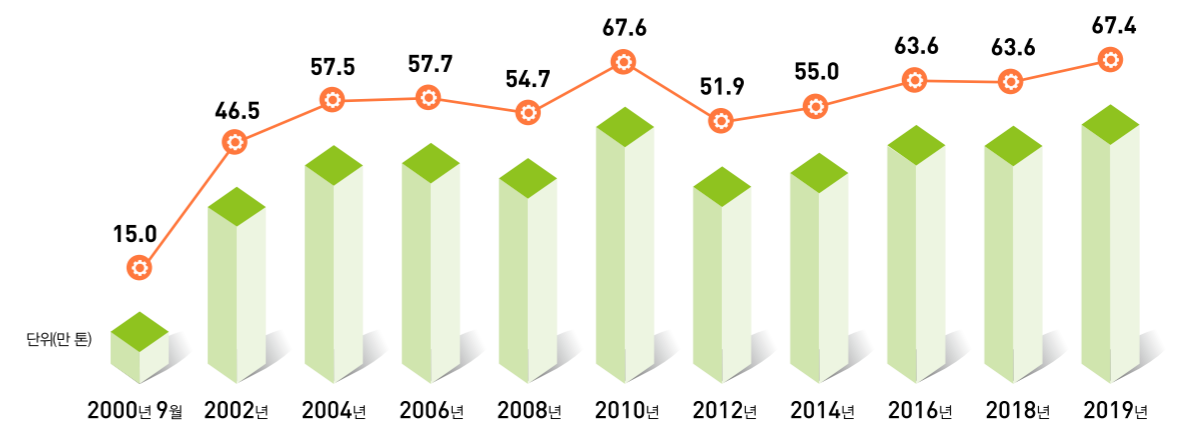
25세부터 6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근무하는 폴리미래 직원 평균 나이는 40세다. 특히, 30세 중후반과 50대가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다.



폴리미래는 창립 이후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현재는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



디보틀렉킹 프로젝트와 공정혁신활동을 통해 꾸준히 생산량을 확대해 오고 있다.







# 2040년 폴리미래의 모습은...

요즘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업종을 막론하고 '언택트(Untact)'가 부상하는 뉴노멀 시대를 맞고 있다. 이제는 비대면이나 AI 등이 먼 미래가 아닌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가 되었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폴리미래를 보며 20년 후인 2040년 폴리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그려보며 잠시나마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았다.

재무팀 \_ 조성출 상무



## 2040년 6월 30일, 날씨 맑음, 코로나 신규 확진: 58명

오늘 아침 카페라테를 맛있게 마시고 있는데, 채현준 부장한테서 전화를 받았다. 9월에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축하 영상 메시지를 하나 만들어서 보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은퇴한 OB 몇 명에게 부탁할 예정이란다. 40주년 기념 영상 메시지 연사로 선정된 영광과 함께, 폴리미래 창립 20주년을 맞았을 때 채현준 부장은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었는데 벌써 부장이 되었다니 세월이 참 빠르게 느껴졌다. 그 당시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20주년 행사를 기존의 계획대로 근사하게 치르지 못했는데, 그 뒤로 20년이 더 지난 지금, 더욱더 진화된 코로나19로 인해 기념 행사를 사이버 연회장에서 해야 한다니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다.

오랜만에 통화한 김에 이런저런 회사 소식을 물어 봤는데, 2032년 이후로 신규 채용은 로봇으로만 이루어져 회사 전체 직원이 100명 아래가 됐다고 한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내가 퇴직하기 4~5년 전 정부터 언택트 및 원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적인 성격으로 일부 업무에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RPA의 업무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한다. 기존 다섯 명으로 구성되었던 팀이 현재는 두 명으로 줄었고 없어진 자리는 풀 타임 및 파트 타임 RPA가 대체하였으며, 이마저도 구독(Subscription)의 형태로 활용하고 있어 유동적인 업무량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직전 글로벌 컨설팅 회사의 IT 관련 부문에서 '인공지능 기반 예측(AI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forecasting)'이라는 주제로 우리 회사를 방문해서 프로모션을 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설마 저게 제대로 되겠어?"하면서 통상 컨설팅 회사가 하는 뜬구름 잡는 소리로 치부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시스(ICIS)와 플래츠(Platts) 같은 시장 정보 회사마저도 AI를 활용해서 리포트를 내고 있고, 우리 회사는 여러 시장 정보 회사에서 받은 정보에 우리 회사 상황을 반영 및 가공해서 주간/월간/연간 경영계획에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초기에 RPA를 도입할 당시에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 위주로 시작했었고 내가 퇴직할 무렵에는 "RPA들이 제법 일 좀 하네"라는 느낌을 조금 가졌었는데, 이제는 생각하는 일까지 상당한 수준으로 해 낸다고 하니 20세기에 태어났던 나에게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사람으로 구성된 팀원 두 명 중 한 명은 소위 깃워커(Gig Worker)라 하는 비정규직 프리랜서가 담당한다고 한다.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고 이를 지원해 주는 각종 기술들이 발달하다 보니 현재는 시간 및 장소에 따른 근무 여건에 대한 제약이 크게 줄어들어 많은 업무가 '깃워커'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보안을 크게 요구하지 않는 업무 대해서는 '직원 세어링'도 일부 도입되었다고 한다.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던 채부장도 얘기 중간마다 자기 같은 구세대는 RPA와 깃워커 등으로 인해 역할이 줄어들어 회사에서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느낌이고 무사히 정년퇴직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로봇이 본격적으로 득세하기 전에 퇴직한 내가 부럽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과 관련한 이런저런 뉴스를 접하면서 상상되는 미래의 모습을 일기처럼 그려 보았다. 현재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으며, 천천히 바뀌어 가는 것에도 더욱 가속도가 붙어 버렸다. 부디 이 상황이 잘 극복되고 뉴노멀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채현준 부장: 40 페이지 참조)



# 새롭게 이전한 폴리미래 본사 사무실을 소개합니다

폴리미래는 지난 2월 1일 여의도 유수홀딩스 빌딩에서 여의도 Three IFC 빌딩 17층으로 본사를 이전했어요.  
회사의 성장과 더불어 직원 충원으로 사무실 공간 확보가 필요해짐에 따라 회의실과 휴게실, 다목적실 등 직원 교육 및 소통 공간 확보 차원에서 본사를 이전하게 되었는데요, 대중교통 접근성과 건물 시설, 안전, 주변 편의 시설 등을 고려해 Three IFC 빌딩으로의 이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무실 확장 이전으로 보다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되었고, 무엇보다도 폴리미래 본사 전 직원의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 사무실 내에 쾌적한 업무 환경과 몸과 마음을 리프레시 하기에 좋은 색다른 분위기의 휴게 공간을 조성하여 쉴 때는 확실하게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업무 능력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공간구성으로 꾸몄습니다. ”







“ 유리로 공간을 구분하여 개방감이 느껴지는 독립된 회의실을 만들었고, 개인 업무 공간은 전체를 오픈 스페이스로 꾸며 직원들간의 소통을 중시하였습니다. 바닥에는 소리를 흡수하는 카펫을 깔아 소음을 차단하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했어요.

”

“ 회의실 중간에는 차음기능이 뛰어난 무빙벽을 설치하여 회의 규모와 참석 인원수에 따라 회의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



“

다자간 화상회의 장비를 갖춘 중·소형 회의실을 곳곳에 배치하여 직원들이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하여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 News briefing

2020 20<sup>th</sup> Anniversary Special Edition Vol.45



## 인도, 중동, 터키 고객 방문

폴리미래 김방현 사장과 시장개발/기술팀은 지난 1월 7일에서 17일까지 11일간에 걸쳐 BIT의 주력 판매 국가인 인도, 중동, 터키에 위치한 고객들을 방문하였다. 이번 고객방문 간에는 회사에서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 컴파운드 및 멜트블로운 부직포 시장의 중요 고객들을 방문하여 폴리미래의 Advanced PP를 소개하고, 시장의 수요, 고객의 요구 사항 및 트렌드를 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성장성이 큰 시장으로 금년에는 자동차 컴파운드 시장의 주요 고객을 방문하여 Anti-tiger Stripe 제품들을 비롯, 강화된 자동차 산업 규제에 적합하게 개발된 폴리미래의 메토센 제품 및 고결정성 블록 PP 신제품을 소개하였고, 지속적인 판매물량의 증가를 위한 상업적인 방안도 함께 모색하였다.

더불어 터키 및 중동에서는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인해 지속적인 판매가 어려웠던 대형 멜트블로운 고객들을 만나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약속하였다. 이번 고객 방문을 통해 폴리미래의 다양한 Advanced PP가 향후 인도, 중동, 터키시장에서 잠재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장개발팀 김학상 팀장



## 2020 여수공장 워크샵

2020년 공장 워크샵은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에서 1박2일로 진행하던 기존과 달리 여수공장에서 당일 행사로 진행되었다. 지난 2월 7일 열린 이번 워크샵 1부에서는 각 부서 팀장들의 2020년 팀 관리 계획에 대해 발표하며 올해의 공장 운영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공유하였고, 2부 행사에서는 세대 공감이라는 주제로 베이비부머 세대부터 밀레니얼 세대까지 3개의 다른 세대가 모여 그룹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를 통해 팀 리더, 시니어 관리자, 중간 실무진, 주니어 실무진은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각 세대의 생각 차이를 좁히기 위한 실천 계획을 그룹별로 작성 및 발표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에 윤기엽 공장장은 “유익하고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솔선수범하여 실천할 것”을 당부하고, “연말 성과평가에 본인의 실천 여부를 확인하여 반영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2020년 공장 워크샵은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고 논의를 다루기 위해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화이팅하는 2020년이 될 것을 확신했다.

공정팀 정재근 과장



## 여의도 Three IFC로 본사 이전

폴리미래는 지난 2월 1일 여의도 유수홀딩스 빌딩에서 여의도 Three IFC 빌딩 17층으로 본사를 이전했다.

회사의 성장과 더불어 직원 충원으로 사무실 공간 확보가 필요해짐에 따라 회의실과 휴게실, 다목적실 등 직원 교육 및 소통 공간 확보 차원에서 본사를 이전하게 됐다. 대중교통 접근성과 건물 시설, 안전, 주변 편의 시설 등을 고려해 Three IFC 빌딩으로의 이전을 결정했다.

이번 사무실 확장 이전으로 보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인사·노사협력팀 이정균 과장



# News briefing

2020 20<sup>th</sup> Anniversary Special Edition Vol.45



## 폴리미래 김방현 대표이사/사장 취임

폴리미래 김방현 부사장이 지난 2월 28일 폴리미래 대표이사/사장으로 선임되었다.

신임 김방현 사장은 생산, 구매, 물류, 사업관리, 영업 및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폴리미래 공장장과 영업·마케팅 총괄 임원을 역임하며, 지난 20년간 폴리미래의 성공과 혁신에 큰 기여를 해왔다.

김방현 사장은 “그동안 폴리미래와 폴리프로필렌 산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는데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인사·노사협력팀 성상훈 팀장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영등포구청에 마스크 기부

폴리미래는 지난 3월 14일 토요일 영등포구청을 방문하여 보유하고 있던 마스크를 기부했다. 마스크 공급 부족으로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동참하고 지역 방역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영등포구청에 마스크를 전달했다.

이날 폴리미래 인사팀 성상훈 팀장은 코로나19 방역에 고생하는 영등포구청 관계자 분들에게 직접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인사·노사협력팀 유민지 사원



## 무재해 3,000일(10배수) 달성

폴리미래는 2020년 6월 21일 기준으로 무재해 3,000일(10배수)이라는 뜻깊은 기록을 달성했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7번의 대 정비 작업과 다양한 프로젝트와 크고 작은 작업을 안전하게 마치고 달성한 성과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빛난다. 이는 ‘예외 없는 완벽한 안전(Safety Perfection, Without Exception!)’과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공장(The cleanest site in the world!)’이라는 폴리미래의 안전환경 정책을 직접 실천해 온 폴리미래 임직원 모두의 결실이다. 이러한 성숙하고 열린 안전문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무재해 100% 달성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안전환경팀 임재영 팀장

## 폴리미래 창립 이후 월간 최대 스페셜티 제품판매량 기록

코로나19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수개월째 전 세계는 경제 위축 및 전염병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염의 확산을 줄이고자 각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와 마스크 착용, lockdown 등 국가 차원의 고강도 자국책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심각성과 더불어 지난 1월부터 급격히 증가한 안면마스크용 멜트블로윈(Meltblown) 물량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폴리미래는 폴리프로필렌 멜트블로윈 제품의 아시아 선두주자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다하고 코로나19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기 위해 멜트블로윈 생산과 공급에 집중하였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도 멜트블로윈 생산 라인 증설 투자를 과감히 시행하여 단기간에 목표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생산 및 공급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지난 2월을 시작으로 3월 그리고 5월 월 스페셜티 최대 판매량 기록을 지속 경신하게 되었고, 이는 각 유관 부서 개개인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노력한 결과로 자부하고 있다.

영업 및 마케팅 총괄임원 정승호 상무

# News briefing

2020 20<sup>th</sup> Anniversary Special Edition Vol.45



## BIT 마케팅 회의 개최 및 고객 방문

회사는 지난 1월 13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위치한 LyondellBasell 사무실에서 BIT(Basell International Trading) 팀과 마케팅 회의를 진행하였다. BIT는 폴리미레 제품의 해외판매 채널로서 인도를 포함하여 서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터키로의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BIT 마케팅 회의는 매년 양사의 임원 및 실무진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되는 주기적인 회의로서, 이 회의를 통하여 서로의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고 각 현안에 따른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인도를 포함한 서아시아 및 중동, 아프리카, 터키 지역의 각 지역별 시장 동향과 향후 시장 방향의 예측과 개발, 제품의 홍보 및 기존 제품의 수출, 사업에 대한 영업/마케팅 등 기술과 연계된 종합적인 판매 전략을 구축하였다.

더불어 회사는 지속적으로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스페셜티 제품군(메탈로센, 멜트블로운, 고기능성 컴파운드 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BIT 지역으로의 지속적인 판매 확대를 독려했다.

시장개발팀 김학상 팀장

## 울산피피(UPP) 프로젝트 팀, HSE 벤치마킹을 위해 폴리미레 여수공장 방문

폴리미레와 SK Advanced의 합작법인인 울산피피(UPP)의 프로젝트팀이 지난 2월 21일 폴리미레 안전환경보건 관리 체계 벤치마킹을 위해 여수공장을 방문하였다. 울산피피는 폴리미레와 동일한 폴리프로필렌 제품과 공정으로 운영되며, 공정 운전과 더불어 안전 관리를 공장 운영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향후 울산피피 공장 정상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폴리미레의 현 안전 관리 방법 및 체계를 공유하고, 서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안전환경팀 박철 과장

## 안면 마스크용 멜트블로운 홍보 개시

지난 4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안면 마스크용 멜트블로운 판매량 증대를 위해 회사는 다방면으로 홍보를 시작하였다.

우선 폭넓은 시장 확장을 위해 Google(포털 사이트), Baidu(중국 포털 사이트), Linked-in(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Non-woven Industry(부직포 관련 전문 정보 사이트)에 회사 광고 문구를 게시했으며, 적극적인 중국 고객 유치를 위해 홈페이지 중국어 버전을 개설하였다.

향후 회사 주력 제품인 멜트블로운 소개가 담긴 팸플릿 및 유튜브를 통해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홍보로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재차 세계로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시장개발팀 김학상 팀장

## 인사동정

### 임원승진

2020. 2. 28부  
대표이사/사장 김방현

2020. 3. 1부  
영업 및 마케팅 총괄임원 정승호

### 승진

2020. 4. 1부  
1급(을) 사원으로 승진  
강은혜, 구석훈, 김가영,  
박종영, 이흥석

2급 사원으로 승진  
박홍준

4급(갑) 사원으로 승진  
고재현, 서영훈, 신원식

### 입사

2020. 1. 6부  
김성조, 조지성, 장홍준,  
최지호, 석채훈, 채현준

2020. 6. 1부  
장수빈, 황정진, 김권호, 이학철

2020. 7. 21부  
공무팀 임승면

2020. 8. 12부  
사업·자산관리팀 황인성

### 전직/파견(울산피피 주식회사)

2020. 3. 1부  
이종선(전직), 임종술(파견)

2020. 5. 1부  
이광섭(전직), 신민우(전직)

### 부서/보직변경

2020. 2. 1부  
구매팀 이영숙  
사업·자산관리팀 이흥석  
생산2팀 조승래(팀장)  
생산1팀 황훈(팀장)  
프로젝트팀 이종선  
생산3팀 박종영(팀장)

2020. 2. 24부  
기획팀 김승현

2020. 3. 1부  
인사·노사협력팀 성상훈(팀장)  
생산3팀 고종현

2020. 4. 1부  
사업·자산관리팀 엄기철(팀장)  
내수영업팀 임채휘

2020. 4. 6부  
생산1팀 김성조  
생산2팀 장홍준, 조지성, 정현목

2020. 6. 1부  
기획팀 박재하(팀장)

2020. 7. 6부  
생산3팀 석채훈  
ADTS 최지호

2020. 7. 13부  
재무팀 이주원  
기획팀 유민희

### 정년퇴직

2020. 6. 30부  
기획팀 정동수



# 장수기업의 조건

20년의 존속기업으로 살아남는 것은 그 자체로만 대단한 일이다. 사업 세계의 치열함을 아는 사람으로선 창업 이후, 5년, 10년 그리고 20년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생존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업 20년은 축하받아야 할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지금부터 30년, 40년 그리고 50년을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역사가들에게 역사가 중요하지만 사업가들에게는 과거란 큰 의미가 없다. 지금 어떤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가 중요할 뿐이다.

공병호TV-공병호연구소 \_ 공병호 소장



지금 산업계는 일찍이 유례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문제를 던지고 있다. 매출 급감과 매출 증발이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를 안겨다 주고 있다. 비대면거래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는 기업들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반면에 대면 거래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파급 효과를 가장 극적으로 말해주는 곳이 항공업계일 것이다. 한국 경우만 하더라도 국적 항공사는 6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국제선 승객수가 98%가 급감한 상태다. 한국의 대표적인 국적 여행사의 경우 국제선 매출 의존도가 무려 94%나 된다. 간단한 2개 숫자만으로도 항공업계가 얼마나 큰 시련기를 맞고 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규모나 업종을 불문하고 국내외 대면거래에 바탕을 둔 사업모델을 가진 기업들은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코로나19는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따라서 정상화에는 내년 그 이후까지를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사업가들 입에서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놀라움과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기업 세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더더욱 지금의 성과에 대해 과도한 자신감을 갖는 것은 금기다. 상황은 항상 바뀌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최적의 해법을 찾아내야 생존과 번영이 보장되는 곳이 바로 기업 세계다.

어떻게 하면 20년을 넘어서 50년 그리고 100년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올해로 필자 역시 조직을 떠나서 개인사업을 시작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더더욱 “20년을 넘어서는 장수기업의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개인적인 느낌이 강하다. 참고로 필자는 일찍부터 기업의 부침과 흥망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사람이기도 하다. 그동안 100여

권의 개인 저작물을 갖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처녀작 즉 가장 처음으로 쓴 책이 1993년에 선을 보인 <기업흥망사>(명진출판)이다.

이들 가운데 처녀작 즉 가장 처음으로 쓴 책이 1993년에 선을 보인 <기업흥망사>(명진출판)이다.

30대 초엽부터 기업의 부침에 대한 관심은 필자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온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첫째, 자만은 몰락의 지름길이다.

모든 몰락의 첩경은 자만과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나라든 똑같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몰락의 씨앗은 어떻게 뿌려지는가. 창업을 하고 난 다음 웬만큼 사업이 안정되고 현금 흐름이 원활해 지면 어김없이 회사 내에는 자만이나 교만의 씨앗이 뿌려진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분위기가 조직을 감싸게 된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조직 차원에서 경보음을 받아들이야 한다.

자만의 또 다른 모습은 매너리즘이 조직 깊숙이 스며드는 것을 말한다. 그냥 예전에 해 왔던 대로 반복하는 관행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면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렇다면 자만을 제거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없을까?

돈이 전혀 들지 않는 멋진 방법이 있다. 추구하는 목적지 자체를 높이 잡아버리면 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업을 하는가? 이런 질문에 조직의 구성원들을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업계에서 좀 더 나은 기업을 만든다는 차원이 아니라 목적지 자체를 높이 잡으면 된다. 우리는 업계를 대표하는 혹은 리딩하는 유일무이한 훌륭한 기업이 된다. 그러니까 조직의 지향점인 “훌륭함을 향한 전진”과 같은 곳에 모이게 되면 교만이나 자만이 들어설 공간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 ‘훌륭함’이란 기준에 비교해 보면 항상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웬만큼 매출을 올리고, 웬만큼 먹고 사는 조직이 되자라는 것으로는 늘 교만과 자만이 들어설 공간이 생기게 된다. 어차피 이 분야에서 사업을 한다면 제품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기업이 되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면 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요원의 불꽃처럼 타오르게 될 것이다.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건강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직무수행에 대해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몰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그 조직에서 개선과 혁신 그리고 창조가 나올 수 있다. 깊이 자신의 업무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직무관과 직업관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조직만이 장수기업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결국 사람이다”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에 따라서 기업의 승패가 결정된다. 내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기업은 세상 기준으로 보통 수준의 사람을 뽑아서 월드 클래스 인재로 만들어 내는 경영자다. 한 제조업체 분야를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경영자를 만날 수 있었다. 일찍부터 사업 다각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우치고 해외 매출을 크게 늘려서 국내 불황에도 불구하고 해외 우수 기업들을 고객으로 포함시키는 데 성공한 이 기업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대학을 졸업할 당시에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5년, 10년을 근무하면서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는 전사들을 키워낸 점이다.

내가 주목한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해 진군하는 조직을 만든 다음,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단련되고 훈련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결국은 목표를 하나하나 돌파하는 과정에서 인재들은 스스로의 장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런 장기들을 갈고 닦음으로써 걸출한 성과를 창출하는 인재로 발전되게 된다.

삼성이나 엘지처럼 굴지의 기업들은 처음부터 명문대 출신들을 뽑을 수 있다. 그러나 중견기업은 평범한 인재들을 뽑는 데 만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드 경험을 통해서 탁월한 인재들을 만들어 내는 것은 조직 리더의 인재관과 강력한 동기부여 시스템, 학습 문화, 목표지향적 문화 등이 어우러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일당백 일당 천을 감당할 수 있는 인재들이 내부에 있어야 장수기업이 될 수 있다.

**셋째, 리더의 판단이 명운을 가른다**

조직 구성원 모두가 잘해야 한다. 이들 중에 경중을 가리자면 조직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리더그룹이 내리는 의사 결정에 따라서 조직의 명운이 뚜렷하게 결정된다. 길지 않은 한국의 기업역사를 볼 때도 사업 다각화 실패 때문에 무대 뒤로 사라진 기업들이 많다. 무모한 사업 확장 때문에 망한 기업도 있고, 기술 트렌드를 잘못 선택해서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도 있다.

시대변화와 고객변화 그리고 기술변화의 트렌드와 메가트렌드를 잘 읽고 자원배분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장수기업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 사실 기업의 성장이란 자원배분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의 사업모델에서 웬만큼 현금흐름이 원활해지면 그것을 갖고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따라 기업의 명운이 결정된다. 지나치게 안정 지향적인 기업들도 위험하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무모한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는다.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정답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안주하면 반드시 위기가 닥치게 된다. 기존의 사업모델을 이용해서 웬만큼 현금 흐름이 원활할 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것이 신제품이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모델이건 간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없다면 어려움이 닥친다. 신기한 것은 사업 확장은 마치 야구와 비슷한 점이 많다. 야구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흔하게 관찰하는 현상이 있다. 일사 만루와 같은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그다음에는 대부분 실점하는 위기를 맞는다는 사실이다.

사업도 마찬가지로 본다. 기존의 사업모델이 웬만큼 자리를 잡으면 그다음 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준비가 더디게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못하면 일사 만루 이후의 위기와 같은 상황이 기업에서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사업에서 속명과 같은 일은 부지런히 페달을 밟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실상 창업보다 더 어려운 일이 수성이다.

수성보다 더 어려운 일은 성장하는 것이다. 그것이 왜, 어려운가? 기존 사업모델이 잘 돌아가게 되면 조직 내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됐다”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본래 모습이 그러하다. 눈앞의 성과에 눈이 가리기 쉽다. 그러나 “이제 잘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위기의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준비, 준비, 또 준비”라는 구호를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한다. 하나가 웬만큼 돌아갈 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곧바로 위기가 온다. 이것은 꼭 기억하기 바란다. 회사에 수익을 듬뿍 안겨주는 것이 있다면, 이와 동시에 필수적인 것은 또 다른 수익창출의 원천을 만들어 내기 위해 정말 목숨을 걸고 뛰어야 한다.

지금 돈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목숨을 걸고 뛰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기업들은 반복적으로 어려움에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기업 경영은 한편으로는 성과 창출을 위한 경주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맨틀 게임과 같은 것이다. 지금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룰수록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절실함이나 절박감은 웬만큼 돌아가고 있을 때 생겨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장수하는 기업들이 나오기 힘들다는 것이다.

**넷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꾀해야 한다.**

불시에 한방을 먹을 수 있다. 오프라인 비즈니스로 호황을 누리는 기업 가운데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기업들이 많다. 대면거래로 영원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처럼 보이던 기업들이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경우도 많다.

어디서 터질 줄 모른다. 사업이 바로 그런 것이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리스크는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가능한 전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최대한 계량화하고 이에 맞추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리스크 관리에서 중요한 몫은 바로 성장관리에 있다.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매출이 크게 흔들릴 때 대부분 기업들의 어려움은 시작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매출 신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품은 다각화하고, 고객을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조직문화와 시스템이 장수에 힘을 더한다.**

머무르면 몰락을 뜻한다. 계속해서 페달을 밟듯이 움직이지 않으면 기업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조직 내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앞서가는 것을 연구하고 작은 아이디어라도 서로 먼저 실험해 보려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청년정신과 실험정신은 조직문화에서 나온다.

개방적이고, 역동적이고, 도전적이고, 학습지향적인 그런 조직 문화를 깊게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조직문화와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는 것이 시스템의 힘이다. 시스템의 핵심은 계량화에 있다. 측정할 수 있으면, 분할시킬 수 있다. 가능한 기업경영의 모든 부분을 정량화하고 계량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더욱더 분할시킬 수 있다. 필자는 유튜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1년 3개월 정도 되었다. 유튜버를 하면서 관리자 영역에 주목하게 되는데, 미국 기업들의 정수를 확인하게 된다. 콘텐츠 생산자의 모든 것을 계량화하여 콘텐츠 생산자 스스로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끝으로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면서 건강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직무 수행에 대해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몰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그 조직에서 개선과 혁신 그리고 창조가 나올 수 있다. 깊이 자신의 업무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직무관과 직업관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조직만이 장수기업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몰입이 강물처럼 흐르는 조직이면 선두를 달릴 수밖에 없다. 몰입을 방해하는 요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해서 모두가 신화창조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오늘보다 내일이 더 눈부실 폴리미래의 새로운 주역들



폴리미래에 입사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당당한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고 있는 새내기 신입사원들!  
올해 회사가 창립 20주년을 맞은 것처럼 미래의 30주년,  
40주년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항상 초심(初心)을  
잃지 않고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보이는 여섯 명의 신입사원들을 소개합니다.





### 폴리미래의 FM 사원이 되겠습니다

**김성조 사원** \_ 고등학교 시절 '묘도'라는 섬에 살면서 학교가 멀다는 핑계로 검정고시를 보았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자취하며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지만 무위도식(無爲徒食)이나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이에 전남대학교에 입학하여 생명공학을 공부하였으나 선택한 전공에 뜻이 없어 중퇴를 결정하고, 이후 여수 공단 취업이라는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영대학 화공환경과에 입학하였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폴리미래 입사라는 제 인생에서 너무나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꿈꿔오던 폴리미래였기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제한되는 사항이 많아 힘이 들기도 하지만 코로나19로 취업시장이 더 악화되기 전에 입사한 것을 엄청난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폴리미래가 첫 직장이기엔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좋은 선배님들을 만난 덕분에 어렵지 않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군 시절, 작은 일이라도 꼼꼼하게 정석대로 처리하다 보니 FM 병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폴리미래에서도 제가 맡은 업무 하나하나 꼼꼼하게 매뉴얼대로 열심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폴리미래에서 40년 가까이 근무하게 될 팀원들과 가족 같은 분위기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입사할 후배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폴리미래의 FM 사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후배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조 사원



###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완벽한 사원이 되길 꿈꾸며...

**채현준 주임** \_ 최종 면접이 있던 날, 대기실에 앉아 있던 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대기 중인 다른 면접자들을 보며 긴장되고 불안했지만, 합격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솔직하게 면접에 임한 덕분에 폴리미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020년의 시작과 함께, 폴리미래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5개월이 흐른 지금, 많은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회사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재무팀에서 지급과 법인카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다른 유관부서의 선배님들과 의사소통이 필요하기에 잘 모르거나 궁금한 부분은 질문하며 제 업무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 가끔 질문 세례를 하기도 하지만 모든 분들이 웃는 얼굴로 친절히 알려주시는 덕분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업무에 조금씩 익숙해지는 제 모습이 때로는 신기하고 뿌듯합니다.

폴리미래에 재직하며 느낀 가장 좋은 점은 배움에 대한 기회가 끊임없이 있다는 점입니다. 저 또한 담당업무와 관련된 외부 강의 및 인터넷강의를 듣거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영어회화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5년, 10년 후에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첫 날의 열정을 기억하며 항상 노력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배움을 통해 자신을 한 단계씩 발전시켜 나가는  
채현준 주임



두 번의 도전으로  
당당히 최종 합격을 거머쥔  
생산2팀 조지성 사원



### 폴리미래의 성장에 보탬이 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조지성 사원** \_ 저는 두 번의 도전 끝에 폴리미래에 합격한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폴리미래에 처음 지원했을 당시 불합격의 고배를 마시고 여천 산단이 아닌 충청도에 있는 한 기업에 합격하게 되면서 교대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폴리미래에 채용공고가 다시 뜬 것을 보게 되었고 원래 목표였던 폴리미래에 재도전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폴리미래에 도전한 이유는 여천 산단에 위치한 많은 기업에 지원하여 인적성 시험과 면접을 여러 번 보면서 다른 기업에서는 받지 못했던 대우를 폴리미래에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폴리미래 인사팀에서 지원자들을 신경 써주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 폴리미래 지원 과정에서 받았던 좋은 느낌의 기업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채용공고를 본 순간 자식에 이끌리듯 다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듯 폴리미래에 최종 합격하였고, 지금은 생산2팀 용성공장에 배치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종 합격했을 때의 성취감과 행복감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벌써 입사한지 5개월이 지나 교대근무를 시작한지도 2개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폴리미래 이미지에 맞게 훌륭한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후배들의 안전부터 먼저 챙겨주시고 작업할 때는 항상 크로스체크를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든든하게 현장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해 주시는 선배님들과 직원들의 안전을 중요시하는 폴리미래에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폴리미래와 선배님들에게 받은 만큼 보답할 수 있도록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폴리미래 성장에 보탬이 되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0년 후 폴리미래를 이끄는 성장동력이 되겠습니다

**석채훈 사원** \_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오퍼레이터 신입사원 석채훈입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폴리미래에 들어오게 된 만큼, 입사 후 교육 기간 동안 더욱더 열심히 교육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입사 전, '울산을 떠나 완전히 다른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잠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이 입사한 다섯 명의 동기들 그리고 선배님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아무 문제없이 적응하는 저를 보며 전 정말 인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선배님들은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 하시고 불편한 것은 없는지 항상 물어봐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후배사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런 모습을 본받아 저도 나중에 선배사원이 되었을 때 지금의 선배님들처럼 후배사원들을 위하고 싶습니다.

면접 당시, 지원자 모두 폴리미래의 단점이 무엇이나는 공통 질문을 받았습니 다. 다른 지원자들이 머뭇거릴 때 저는 '폴리프로필렌(PP)이라는 한 가지 사업만 하고 있어 사업의 다양성과 발전방향이 다소 좁을 수 있다'라고 답한 것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입사 후 회사 생활을 해보니 지금은 폴리미래가 오직 PP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엔지니어 선배님들부터 오퍼레이터 선배님들까지 회사의 성과를 위해 힘을 합쳐 목표를 향해 가는 모습이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그 결과 다른 회사는 따라할 수 없는 폴리미래만의 독보적인 시장성을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선배님들처럼 10년 후의 폴리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선배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발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선배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운이라는 석채훈 사원

전문성을 갖춘 폴리미래인이 되겠다는 최지호 사원

### 끝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지호 사원** \_ 안녕하세요! 지난 1월 6일에 입사해 신입사원 교육을 받고 있는 최지호 사원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폴리미래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던 그날이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폴리미래 입사 전 사보 <Poly-Village>를 보며 폴리미래에 대한 목표와 꿈을 키워왔는데 이제는 제가 폴리미래 사보에 실릴 수 있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고 앞으로 어떤 회사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 5개월이 지난 지금 걱정했던 시간이 무색할 만큼 좋은 선배님들과 동기들 덕분에 어려움 없이 낯선 여수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5개월 동안 배우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힘들 때마다 항상 선배님들이 도와주고 이끌어주셔서 신입사원인 제가 어려움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ADISI 교육과 교대조 교육을 받으면서 선배님들의 직무에 대한 열정을 직접 느꼈으며 '나도 선배님들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모르는 것 투성이인 저에게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후배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폴리미래의 문화에 반하게 되었고,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에게 업무 기술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선배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아 선배님들을 귀찮게 하고 때로는 답답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선배님들의 조언과 가르침 그리고 열정을 본받아 한 계단씩 성실하게 업무를 배워나가겠습니다.

### 폴리미래에서 최고의 현장전문인이 되겠습니다

**장흥준 사원** \_ 저는 고향인 여수에 있는 여천 산단 내의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석유화학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25살이라는 나이에 석유화학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대학에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의 많은 분들이 저의 도전에 힘을 실어주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저는 실업계를 나와 이과에서 배우는 과목과 거리가 멀었고 고등학교 졸업 후 책과의 만남이 잦지 않았기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낀 궁금증과 배우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는 결국 저를 대학진학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라도 더 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폴리미래에 입사하는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폴리미래에서 다재다능한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 항상 입사초기의 마음가짐과 신입사원의 자세로 모르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배님들에게 물어보며 배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회사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재다능한 플레이어가 되고 싶은 생산2팀 장흥준 사원



#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폴리미래

폴리미래는 2000년 창립 이후 사내 봉사동호회 활동을 시작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여수와 서울 지역의 소외계층 및 지역 주민을 위한 금품기부, 일상 생활편의 지원, 주거환경 개선, 환경정화 활동, 벽화그리기 활동, 김장봉사활동 등 경제적 지원 및 지역사회와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직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폴리미래 직원들은 이 외에도 '한사랑 미래 봉사대'라는 자발적 자원봉사 단체를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물품을 후원하고 있으며, 회사는 직원들의 자발적 나눔에 힘을 싣고 함께 동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단체 봉사활동 이외에도 직원들이 후원하는 것과 동일한 액수만큼 기부하는 매칭펀드(Matching Fund)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폴리미래는 직원 참여형 봉사활동과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며, 나눔 활동을 실천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어려울 때 우리는 가장 많이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 조지 워싱턴 -





“ **갬성 가득 추억 뜯네!** ”



코로나19가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 놓으며 정적인 생활이 늘어난 요즘 자연스럽게 집콕이 확산되면서 지나온 추억을 떠올려보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 가장 기분 좋고 간직하고픈 소중한 기억의 한 부분을 떠올리며 그 시절로 함께 떠나봅니다. “추억 여행 시작~”



무려 16년 전인 2004년 6월에 본사 산악회 (당시 산악회장 이주원 부장) 주관으로, 강화도 마니산으로 등산했을 때입니다. 제가 어디 앉아 있는지 찾아보세요! \_ 구매팀 송경식 팀장



어릴 적 보물 1호였던 포켓몬스터 책자를 소개합니다. 저 책자를 보면, 포켓몬 스티커를 구하기 위해 친구들과 같이 동네 슈퍼마켓에서 사니 빵을 사 먹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로켓단 초코롤 빵을 너무 좋아해서 편의점에서 재출시했으면 좋겠어요. \_ 공정팀 정태형 주임



20년 전 제 모습입니다. 20년 전 사진 속 저는 젊음과 건강이 곧 가족의 행복임을 확신하고, 그것이 직장에서도 활기를 준다고 생각하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 관리에 충실했던 시기였습니다. 건강한 삶이 건강한 가정과 회사를 만든다고 생각하기에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_ 생산2팀 이육식 차장



이 사진은 입사 후 처음으로 본사 동호회 활동에 참가하여 찍은 사진으로 볼링, 양궁, 당구 등을 함께 하며 다양한 추억을 만들었어요! 당시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재미있었던 동호회 활동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_ 재무팀 임승준 대리



8년 전 동기들과 함께하며 행복했던 신입사원때의 추억입니다. 건강도 마음가짐도 이때의 초심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다잡아 보고자 합니다. \_ 생산2팀 정현목 대리



이 사진은 2007년도에 찍은 사진으로 이때가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의 시기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자신밖에 모르던 젊은 시절과 결혼 후에도 가족만 챙기던 저는 봉사를 통해 이웃도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했으며, 더 나아가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 속에서 저의 과거를 회상해보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똑같은 이 길을 걷고 있을 제 모습을 상상하면 흐뭇해집니다. \_ 안전환경팀 양정교 부장



저는 김철재 부장님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회사창립 20주년을 함께 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글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저와 같이 일하셨던 김철재 부장님께 제가 쓴 시를 바칩니다!

**명암**

그대 가슴에 검게 그을린 두려움과 절망은 그저 작은 탄소 덩어리에 불과하오. 밝음과 어두움은 시간의 흐름과 같은 사사로운 반복인걸. 어두워진 골목길은 여간 외롭겠지만 그 길 저어 고티머리엔 동이 트고 파랑새 저저굴 테니 그냥 - 무심히 그렇게 - 터벅, 터벅 걸어오시오. \_ 시장개발팀 박종윤 과장



남자라면 누구나 다녀오는 군대 옛 전우들은 다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까?? 애 옛날이야~ㅋㅋ \_ 생산3팀 이승욱 과장



추억의 한진해운 15층 사무실! 입사 후 6년이란 시간을 보낸 곳입니다. 이사오기 전날 이곳에서의 시간을 추억하려고 한 장 찍었습니다. 지금 사무실도 좋지만, 한진해운 건물 앞을 지날 때면 왠지 한번 들어가야만 할 것 같아요! 하하 \_ 사업·자산관리팀 함선영 사원



비록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깜짝 놀랄만한 귀여움이지만, 저도 어릴 적 이렇거나 귀여운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아들 주혁이의 아빠가 되어 이 사진을 들여다보니 저를 예뻐하며 키우셨을 부모님의 마음과 제 어린시절이 생각납니다. 뒤에 보이는 차들이 지나온 시간의 깊이를 더 느끼게 합니다. \_ 인사·노사협력팀 황호인 대리



동기와 후배들이 모여 지리산 천왕봉을 등정했던 때입니다. 2002년 그때 지리산을 다녀온 후 다리에 진동기를 달고 다니는 것처럼 그날 내내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하... 지금도 동기들과 일주일 내내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하... 지금도 동기들과 만나면 늘 당시의 지리산 등정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 사진을 보니 이 멤버 그대로 또 가고 싶어집니다. \_ 기획팀 박재성 과장



# 온택트, 달콤하기도 쓰디쓴 Bittersweet

### # 직장인 김모(36)씨는 오전 8시에 침대에서 일어나 부스스한 머무새를 가다듬고 서재로 가서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다. 8시 30분께 카카오톡 단체 대화창에 "업무 시작합니다"라는 메시지들이 줄을 잇는다. 9시에는 팀원 단체 전화회의로 팀원들이 돌아가며 당일 업무 계획을 공유하고 업무를 본격 시작한다. 주 2~3회는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 토론을 하는 화상회의가 열린다. 오후 6시, "오늘도 고생했다"는 부장의 메시지가 올라오면 그제야 한숨을 돌리며 컴퓨터를 끈다. 가끔은 보고서 마감 시한을 맞추기 위해 야근도 한다.

연합뉴스 \_ 김영신 기자



코로나19가 사회 전 분야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떨어져 있지만 연결은 그대로”. 언택트(비대면·Untact)에 연결이라는 개념을 더한 '온택트(Ontact)가 일상이 돼간다. 코로나19 초기만 해도 생경했던 재택근무, 화상회의, 온라인 전시회공연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는 매년 대규모 행사로 개최했던 스마트폰 갤럭시 언팩(공개) 행사를 올해 전면 온라인으로 열었다. 학생들은 등교와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고, 피아니스트 조성진 등 유명 아티스트들은 온라인 공연을 통해 관객들과 만났다. 코로나 때문에 억지로 시작됐지만, 우리는 이 온택트에 적응하고 또 진화시키고 있다.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은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가히 온택트 전성시대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실험적인 재택근무로 온택트 근무의 가능성을 확인한 기업들은 요즘 온택트를 연구하는 데 한창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명확한 방향성은 '성과주의'와 '효율성'으로 귀결된다. 코로나 이전부터 온택트 근무를 도입한 미국 구글 아시아태평양 하드웨어 사업개발 부문 미키 김 전무는 “사무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서 얼굴을 비쳤다는 이유만으로 인정을 받는 문화는 옛 유물이 될 것”이라며 “온택트는 무한한 자율성을 부여하지만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도 무겁게 지우는 기조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초기만 해도 재택근무를 하면 상사와 함께 있지 않으니 일을 소홀히 해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 하지만 실제 해 본 결과, 그렇게 일을 대처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저성과자로 낙오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온택트의 생리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소위 '인간관계'로 하는 사회생활은 수명을 다하고 일과 성과가 핵심 평가기준이 될 것이고, 철저한 성과에 기반한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온택트를 위한 조직의 과제로는 관련 인프라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지표 마련 등이 꼽힌다.

개인은 어떨까. 자신의 성과를 이전보다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과 사생활이 혼재된 온택트 일상에서 시간 배분과 자기 관리가 중요해진다. 당신은 혹시 온택트가 자유롭고 오프라인보다 덜 피곤하다는 이유로 온택트 시대를 반기고 있는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 자신이 '불요불급' 하지 않다는 사실을 모니터와 스마트폰 너머로 끊임없이 증명하며 사는 삶, 썩 좋지않은 않으니 말이다. 온택트 시대는 무슨 맛이냐고 묻는다면, 비터스위트, 달콤하고도 쓰디 쓴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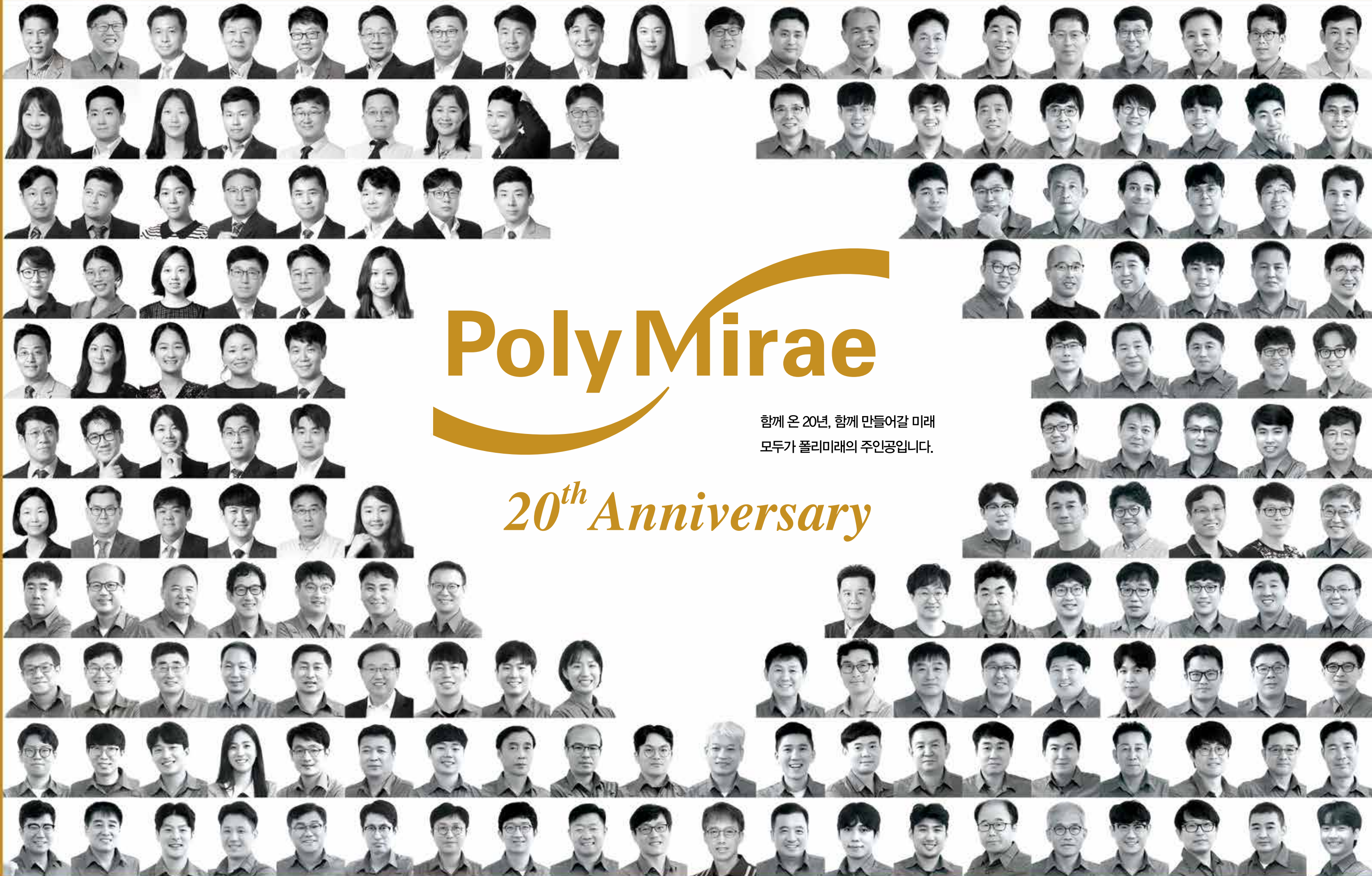
# PolyMirae

## 20<sup>TH</sup> ANNIVERSARY

폴리미래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20년은 최고를 향한 끝없는 질주였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일구어낸 기술력은 폴리미래의 역사이자 기록입니다.  
머지않아 세계 폴리프로필렌 시장에 우뚝 설 그날을 기대하며 언제나 도전을 멈추지 않으며  
질주하는 우리가 폴리미래의 주인공입니다!







# PolyMirae

함께 온 20년, 함께 만들어갈 미래  
모두가 폴리미래의 주인공입니다.

## 20<sup>th</sup> Anniversary



# 다른 그림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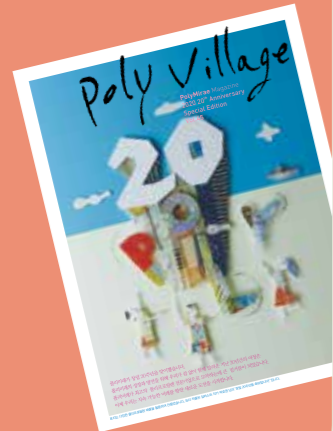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두 사진 중 다른 부분이 5군데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메일(minji.yoo@polymirae.com)로 응모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 응모 시 반드시 이름, 상품을 배송 받으실 주소를 기재 바랍니다.



## 통권 44호 정답 및 당첨자 발표

### ▶ 당첨자

박우준 (박종관 사우 자녀), 박하은 (박철 사우 자녀), 정은주 (이태양 사우 배우자)

# Moplen HP561X, HP461X, HP461Y, HP465Y

폴리미래의 멜트블로운 PP 제품은 전 세계 멜트블로운 시장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폴리미래의 우수하고 안정적인 가공특성을 가진 멜트블로운 PP는 글로벌 리딩 회사로부터 검증받은 특별한 가치를 제공합니다.